



중국소수민족문학발전프로젝트

중국 당대

문학작품선집

— 2016 —

중편소설 **선집**



중국작가협회 편

작가출판사

중국 당대
문학작품선집

—2016—

중편소설선집

중국작가협회 편

작가출판사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中国当代文学作品选粹 (2016) · 朝鲜语卷 · 中篇小说卷 / 中国作家协会编. -- 北京: 作家出版社, 2019. 7

ISBN 978-7-5212-0544-2

I. ①中… II. ①中… III. ①中国文学 - 当代文学 - 作品综合集 - 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②中篇小说 - 小说集 - 中国 - 当代 - 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217.1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19) 第093235号

中国当代文学作品选粹 (2016) · 朝鲜语卷 · 中篇小说卷

编 者: 中国作家协会

责任编辑: 史佳丽 李亚梓

特约编辑: 金美玲

装帧设计: 李 慧

出版发行: 作家出版社有限公司

社 址: 北京农展馆南里10号

邮 编: 100125

电话传真: 86-10-65067186 (发行中心及邮购部)

86-10-65004079 (总编室)

E-mail: zuoja@zuoja.net.cn

<http://www.zuojiachubanshe.com>

印 刷: 北京玺诚印务有限公司

成品尺寸: 170×240

印 张: 21.75

版 次: 2019年7月第1版

印 次: 2019年7月第1次印刷

ISBN 978-7-5212-0544-2

定 价: 40.00元

作家版图书, 版权所有, 侵权必究。

作家版图书, 印装错误可随时退换。

中国当代文学作品选粹编译委员会名单

主任：丹增(藏族)、白庚胜(纳西族)

副主任：包明德(蒙古族)、叶梅(土家族)、乌热尔图(鄂温克族)

委员：(以姓氏笔划为序)

扎西达娃(藏族)、尹汉胤(满族)、石一宁(壮族)、布仁巴雅尔(蒙古族)、阿克拜尔·米吉提(哈萨克族)、阿克拜尔·吾拉木(维吾尔族)、叶尔克西·胡尔曼别克(哈萨克族)、冯霄(傣族)、安国贤(朝鲜族)、吉米平阶(藏族)、阿扎提·苏里坦(维吾尔族)、狄力木拉提(维吾尔族)、吾尔买提江(乌孜别克族)、玛波(景颇族)、南永前(朝鲜族)、哥布(哈尼族)、特·官布扎布(蒙古族)、贾瓦盘加(彝族)、梅卓(藏族)、崔国哲(朝鲜族)、朝戈金(蒙古族)、曼拜特·吐尔地(柯尔克孜族)、于曜东(满族)

秘书：张绍锋、郑函

중국 당대문학작품선집 편역위원회 명단

주 임: 단증(장족), 백경승(나시족)

부주임: 포명덕(몽골족), 엽매(투차족), 우러얼투(어원크족)

위 원: (한자의 성씨 필획에 따라)

짜시다와(장족), 윤한윤(만족), 석일녕(짱족), 부런바야얼(몽골족), 에커바이얼 미찌티(까자흐족), 아이커바이얼 우라무(위글족), 예얼커시 후얼만베커(까자흐족), 풍소(따이족), 안국현(조선족), 지미핑제(장족), 아자티 쉰리탄(위글족), 디리무라티(위글족), 우얼마이티장(우즈베크족), 마퍼(징퍼족), 남영전(조선족), 꺼부(하니족), 터 관뿌짜부(몽골족), 짜와관자(이족), 메이취(장족), 최국철(조선족), 초우거진(몽골족), 만바이터 투얼띠(끼르기즈족), 우요동(만족)

비 서: 장소봉, 정함

中国当代文学作品选粹

中国当代文学作品选粹 朝鲜语卷（中篇小说）编委会名单

主 编：崔国哲

副主编：郑风淑、王汉琦

委 员：金 豪、郑升权、姜艳红、金荣健、金 革、蔡云山、
郑虎元、全华民、崔东日、安美英、李 慧、朴 琼

중국 당대문학작품선집 조선어권(중편소설) 편집위원회 명단

주 필: 최국철

부주 필: 정봉숙, 왕한기

편집위원: 김 호, 정승권, 강염홍, 김영건, 김 혁, 채운산,
정호원, 전화민, 최동일, 안미영, 리 혜, 박 경

심령을 잇는 무지개다리를 놓기 위해

단정, 백경승 지음
우광훈 옮김



중국작가협회에서 주최하고 실시하는 중국소수민족문학발전프로젝트 중의 번역부축전문대상은 그 풍부한 내용과 독특한 창의성으로 세인의 눈길을 끌었다. 이는 중국작가협회가 몽골어, 장어, 위글어, 까자흐어, 조선어 5종 언어로 된 《민족문학》잡지를 성공적으로 창간한 기초에서 진행된 것으로서 60년간 중국소수민족문학의 량적인 축적과 질적인 제고가 가져다준 풍만한 성과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소수민족문화, 소수민족번역, 소수민족문학 사업이 서로 결합된 유익한 실천이며 탐구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 소수민족문학의 한어문번역은 일찍부터 있었다. 레를 들면 옛날의 <월인가(越人歌)>, <랑백가(狼白歌)>는 전국시기부터 진한시기를 아우르는 사이에 그 선례를 보였다. 그 후 중국문학의 한어와 소수민족언어의 상호 번역이나 한어와 외국어의 상호 번역 중의 소수민족문학의 번역은 그 흐름의 끈을 끊지 않고 맥을 이어왔고 우리나라 여러 민족 사이와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문학과 세계문학이 서로 료해하고 서로 흠상하고 서로 배우고 함께 발전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물론 력사적인 원인으로 하여 오랜 기간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상태에 머물러 전체성이나 지속적인 기세를 이루지 못했고 정연한 소수민족문학번역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오늘날 개혁개방사업이 부

단히 심화되면서 종합국력이 높아져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정신적인 터를 건설해야 한다는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국내외의 문화교류도 날따라 빈번해지며 소수민족문학도 발전과 번영기를 맞았다. 이러한 것들은 소수민족문학번역사업을 진일보로 추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덤으로 주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절박한 수요로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부름에 적응하고 우리 나라 문학발전을 고무하는 형세에 적응하기 위하여 중앙 선전부와 재정부 및 류운산 등 중앙령도 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속에서 중국작가협회는 제8차 대표대회 이후 ‘중국소수민족문학발전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실시하였다. 동시에 번역부축전문대상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아래에 민역한(民译汉), 한역민(汉译民), 중역외(中译外), 외역민(外译民) 등 4개 부서를 두었다. 민역한이란 소수민족언어로 창작된 우수한 작품을 한어로 번역하여 한어를 사용하는 곳으로 전파하는 것이고 한역민이란 상기년도의 한어로 창작된 우수한 소설, 시, 산문, 보고문학 작품을 소수민족언어로 번역하여 소수민족언어지구 독자들과 교류하는 것이며 중역외란 한어로 된 소수민족문학의 우수한 작품을 여러가지 외국어로 번역하여 국제문학계에 추천하는 것이다. 외역민이란 최근의 가장 우수한 외국문학작품을 여러가지 소수민족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의 인재와 재력, 물력과 소수민족언어의 사용 및 번역의 실제적인 현황으로 볼 때 우리의 사업은 몽골어, 장어, 위글어, 까자흐어, 조선어로부터 시작하여 상호 번역을 하게 되며 이로써 경험을 축적하고 ‘민족문학’의 다섯가지 언어문판을 상대할 수 밖에 없다. 외국어작품의 상호 번역은 잠시 소수민족언어창작작품을 외국어작품으로 번역하는 데 국한하게 되고 원작자의 뜻과 국제 번역계의 수요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소수민족언어작품과 한어작품지간의 상호 번역을 적시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소수민족언어작품지간의 상호 번역과 외국어작품을 직접 소수민족언어작품으로 번역하는 등 사업에도 참담고 착실한 우리의 노력이 따라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의의는 중국의 국정이 결정한 것이다.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고 번영시켜야 한다는 실제적인 요구가 있는 데다 다원문화를 존중해야 하고 조수처럼 밀려오는 인류문명의 공동한 성과를 함께 누려야 한다는 세계적인 조류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기





본국정이 바로 이러하다. 중화민족은 예로부터 다원일체였다. 거주구역이 다양하고 생산형식이 현란하며 생활방식이 다채롭고 사회형태가 서로 다르며 민족의 계통이 각각이지만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화목, 사회의 조화로움은 시종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의 기본적인 문화국정은 이러하다. 역사는 유구하고 휘황하며 종교는 각양각색이고 언어는 풍부하고 감칠맛이 있다. 문예의 백화는 다투어 피고 풍토와 인정은 아름다움을 다투며 공존하고 문화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세계 4대발명의 거대한 성과와 자리를 함께 해왔다. 우리 문학의 기본국정은 이러하다. 여러 민족은 모두 끝없이 귀중한 문학전통과 문학유산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게는 민족과 지역을 넘어섰고 심지어 국가경계라는 울타리를 넘어섰다. 소수민족의 구두로 전해진 유산과 한족들의 서면으로 된 진품에는 여러가지 유형과 체재, 제재, 풍격, 양식, 이미지에 이르는 문학정수들이 수없이 많고 모두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함께 중국문학의 장려한 경관을 만들었고 세계문학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지리와 사회적인 시공, 문화전통, 특히 언어문자의 장애로 하여 그들지간의 교류는 아직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자원의 리용이 절대적으로 결핍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가치를 부활시키고 활용하는 데 노력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오늘까지 수많은 소수민족언어로 된 문학작품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한족문학경전이 광대한 소수민족독자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중국문학의 전체성, 통일성의 존재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단 이들이 품고 있는 재부와 힘을 동원한다면 우리의 문학원지는 끝없이 쏟아지는 활명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문학창작을 떠날 수 없고 더구나 효과적이고도 활발한 문학번역을 떠날 수 없다. 그것은 문학번역은 심미적인 높낮이와 문화적인 시각, 정신적인 높이로부터 민족간의 료해를 이루게 하고 문화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사회진보를 이끌어가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령혼들을 이어주는 무지개다리를 놓아주어 의혹과 고독을 풀어주고 원한과 증오를 뿌리 뽑아 열립과 포용을 습관시키고 겸손과 누림을 함께 하는 것을 배워주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 나라는 다민족의 사회주의국가이

다. 이 거대한 대가정 속에서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고 여러 민족 문학은 공동한 진보와 번영으로 당대 중국문학의 장엄한 사시를 쓰고 있다. 시대와 인민은 문학이 진실보로 정신적인 창조력을 활성화하게 하고 도덕건설을 추동하며 사회공감대를 응집시키고 국민의 수양을 제고하게 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해방 후 당과 정부는 수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중국소수민족문학의 존재와 발전수준은 아직까지 균형적이지 못하다. 어떤 민족은 발달한 서사문학구전문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민족은 모어창작에 능하며 어떤 민족은 두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하여 창작하기도 한다. 어떤 민족은 작가와 문학의 력사가 길고 어떤 민족은 새중국이 성립된 후거나 개혁개방 후에야 자기 민족의 작가와 작품을 내놓았다. 어떤 민족은 모어창작비율이 높고 어떤 민족은 대부분이거나 심지어 전부가 다른 민족의 언어로 창작한다. 어떤 민족의 대가들은 정품이 수없이 많지만 어떤 민족은 아직까지 새롭게 양성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의 힘을 엮어주고 전체적인 추진을 강화하며 중점을 돌파하여 새로운 민족관계를 건립하도록 하며 고도로 되는 국가적 동질감을 실현하고 여러가지 사회적 힘을 결집하는 데 큰 작용을 늘어야 한다. 동시에 문학의 본체적 의미상에서 다민족언어의 창작을 존중하고 제창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문학번역에 대한 참여와 지지를 빌어 적극적으로 국내외 각종 리념의 부딪침을 실천해 나가야 하며 여러 민족의 우수한 성과들을 서로 교류하여 진실보로 민족작가들의 심미수준과 창작능력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 경험들을 교류하고 습득하고 교류중에서 자양분을 섭취하게 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자립을 완성하게 하여야 한다. 서로의 래왕에서 표현을 배우고 귀담아듣는 법을 익히게 하며 감상하고 감상을 받는 것을 습관화하여 사람들의 진취심을 부추기고 선과 미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중점으로 하는 중국꿈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문화의 배경을 말할 때 중국소수민족문학은 중화문학의 거대한 한부분일 뿐 아니라 국제문학의 일부분으로 튼튼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 문학은 고유한 정신적인 마당을 포기하여서는 존재할 수 없고 더우기는 중국문학을 떠나서 성장할 수 없으며 세계문학을 외면



하여서는 흥성할 수 없다. 오늘의 문단에서 어떠한 실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소수민족작가라 하더라도 본 민족 문학 어머니의 양육과 자기의 두터운 생활축적, 간고한 생명체험과 피나는 사색의 단련이 없고 다른 민족 문학과 세계문학의 자양분을 섭취하지 않고 커운 작가는 없다는 것을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오늘처럼 대개방, 대교류, 대충돌, 대경쟁의 국제문화환경 속에서 소수민족작가들은 특별히 국가적 책임과 세계적인 안목, 인류의 정서와 모든 문명의 성과에 경의를 가지고 민족의 이야기를 끌어내야 하고 자기 민족의 독특한 창조를 보여주고 자기 국가의 형상을 창조하고 함께 인류의 평화사업을 추진해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수많은 민족은 국경을 넘어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소수민족문학과 번역은 국제적인 전파에서 우세를 가지고 있고 특수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문화가 세계로 나가고 이웃을 다독이며 이웃과 친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주변문화 외교사업과 문화소비니즘을 반대하고 문화침투를 막으며 각국 인민들의 우의를 증진하고 국제 우호래왕을 추진하며 국가의 문화주권을 보위하고 국가의 문화안전을 보증하는 사업에 충분한 작용을 발휘하여야 한다.

번역을 우리 나라 고대에서는 ‘전역(传译)’이라고 불렀다. 동중서의 《춘추번영(春秋繁荣)》의 <왕도편(王道篇)>에는 “역관을 두어 전역(传译)하여 조정을 돕는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역이란 구두어 또는 서면언어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전역의 내용이란 옛날에는 정치, 상무무역, 종교, 군사와 부분적인 문학일 것이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과학기술과 철학, 사상, 법률 등을 첨가했고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커져 ‘문학번역’이라는 개념까지 나오게 되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문학번역도 다른 번역과 마찬가지로 모두 엄복이 제창한 ‘신(信)’과 ‘아(雅)’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표달이 류창하고 명랑해야 하며 언어가 우아하고 아름다와야 할 뿐 아니라 ‘이미지에 젖게 하고 뜻을 품게 하는’ 경지에 이르게 하여 사상적인 내용으로부터 상징적인 의미, 감정의 표현, 예술 형식 등 여러 면에서 완벽에 완벽을 추구하여 이미지와 생동함을 전달하고 미적인 감각과 매력으로 넘치게 하여야 한다. 구마라십, 법현, 현장, 엄복, 림금남, 박뢰, 풍질(冯铿), 계선립 등과 같은 번역가들은 바로 심오한 문장수양을 갖춘 대가들이며 일필휘지하는 고수들이자 예



술적인 심미관을 가진 천재들이다. 중국소수민족문학발전프로젝트 번역부족전문대상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오늘날 중국 소수민족언어번역영역의 걸출한 대표들이다. 그들은 모두 문학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소수민족문화의 발전과 번영에 미룰 수 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덕성과 재능을 겸비하고 취향이 견정하며 달갑게 희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피타는 노력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었기에 이번 사업이 질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추진되게 되었고 중국소수민족문학번역사업에서 참신하고 빛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번 사업에는 내몽골, 저장, 신장, 청해, 감숙, 연변 등 자치구와 성, 자치주 작가협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사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참담하게 조직하고 번역하였으며 편집하고 설계하였으며 ‘새벽을 맞으며 지새운 밤 헤아릴 수 없었기’에 광대한 한문독자들이 소수민족모어창작문학의 심오한 깊은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소수민족모어독자들도 가장 빠른 속도로 중국문학의 최신정보와 선도적인 경향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최신성과를 함께 누리게 되었다. 특히 이중언어로 거침없이 열독할 수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잠룡이 하늘을 날고 비룡이 땅을 거닐 듯이 중국문학의 다채로움과 다양함, 기이함에 몸을 담글 수 있었다.

이러한 번역성과를 출판에 맡기게 되는 때 우리는 끝없는 존경심을 가지고 여러 민족 문학번역가들과 원작 작가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번역출판사업을 전심전의로 조직하고 지도해준 자치구, 성, 자치주의 지도자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드린다! 그리고 중국작가출판집단과 자치구, 성, 자치주의 유관 출판단위에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 여러 분야의 관심과 지지와 참여가 있었기에 소수민족문학의 이번 성대한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중국문학의 아름다운 앞날과 빛나는 전망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1월 26일



권두언

《중국 당대문학작품선집》이 해빛을 보게 되었다. 중국작가협회 소수민족문학번역대상의 일환으로 출판되는 이번 선집은 중국작가협회에서 원고를 선택하고 연변작가협회에서 번역을 조직하고 출판에 교부하게 되었다. 150만자(한문)에 5부로 되는 선집은 중편소설편, 단편소설편, 시가편, 수필편, 보고문학편으로 되어있었고 방대한 원고량은 번역부터 하나의 큰 프로젝트였다. 연변작가협회에서는 주석단회의를 열고 번역을 잘할 데 관하여 수차례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번역일군들을 무었다. 그리고 작가들의 특성을 살려 동일한 장르를 창작하는 작가가 번역을 맡기로 하였고 최종 검열은 장백산잡지사의 리혜편집이 맡기로 하였다. 이렇게 큰 문학프로젝트는 중국작가협회의 관심과 지지, 연변작가협회 작가들과 번역일군 그리고 편집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우리 민족은 지정학적인 원인과 역사적인 원인으로 하여 중국의 문화와 문학의 영향을 깊게 받고 교류력사도 유구했는데 서사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그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자기의 찬란한 문화와 문학을 창조하였고 중화문명의 전반적인 발전의 역사시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문학대가들을 배출하였다. 고대로부터 《시경(诗经)》, 《초사(楚词)》와 같은 작품집들이 있었고 당시, 송사, 명, 청

의 소설들에 이르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명작들을 낳아 인류문화의 발전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다. 《시경》과 《초사》 같은 작품집 말고도 《삼국연의》, 《수호전》, 《홍루몽》, 《서유기》 등 수많은 작품들은 우리 민족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번역에 의한 중국문학의 전파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문학의 발전에 심오한 영향을 주었고 우리 문학의 역사적인 원류를 이루는 데 공헌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찍부터 우리 민족은 중국문학에 대한 번역을 시작하였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양은 어마어마하다. 특히 우리 민족이 중국에 이주를 하여 중국조선족으로 발돋움을 하며 자기의 출판사를 가지게 되고 자치주를 성립하면서 중국문학의 고전 뿐 아니라 현대작가들의 작품도 수없이 번역, 출판되었다. 로신, 파금, 심종문, 모순, 로사와 같은 대가들의 작품은 물론 《림해설원》, 《청춘의 노래》...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작가들과 작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는 모두 그 시기의 번역이 이루어낸 결과물이고 성과이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문화건설과 문학, 나아가 문학번역사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민족문화 무용론과 말살정책 아래에서 우리의 문화와 문학은 물론 문학번역사업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사경의 변두리로 몰리게 되었다. 다행히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중국문학은 새로운 흥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의 문학번역사업도 새로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여러 문학잡지들에서 그 시기 창작된 중국문학의 우수한 작품을 번역하여 게재하였을 뿐 아니라 《진달래》라는 번역지를 꾸려 그 시기마다 창작되는 중국의 우수한 작품들을 우리 민족에게 소개하였다. 이는 중국문학번역의 흥성과 갈라놓을 수 없다. 그 시기 중국문학에서 두각을 내밀고 있는 작가들의 우수작품들이 거의다 번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우리 민족의 문학번역사업이 가장 흥성하던 시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은 날로 심화되었고 따라서 중국의 문학도 세계의 문학흐름에 발을 맞추려고 비상한 날개짓을 시작하였으며 우리 민족도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세계의 조류에 눈높이를 맞추기 시작하였다. 민족력사의 연원으로 하여 한국과의 교류가



깊어졌고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른 시장화의 물결 속에서 문화와 문학은 방향을 시작하였다. 어느 날인가 《진달래》라는 번역잡지가 자취를 감추었고 문학지에서의 중국문학번역작품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문학도 중국문학과는 색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를 두고 아직 어떻게 할 결론을 내릴 수 없겠지만 문화와 문학이 가지는 속성으로나 중국조선족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족문학번역사업의 부진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중국작가협회 소수민족문학번역대상의 첫 프로젝트로 이 선집이 출판되는데 이는 우리 민족 문학이나 우리 민족 독자들에게 있어서 역사적 의의가 깊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족 독자들은 다시 한번 중국문학의 우수한 작품들을 실시간으로 열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계기를 발판으로 우리 민족 문화와 문학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스타트가 되었으면 한다.

연변작가협회





금융가(金融街) 변두리길 왕흔봉 지음 / 김견 옮김 1

천우(天佑) 도순 지음 / 김견 옮김 59

고우재 엽광금 지음 / 리선희 옮김 121

공색림목욕탕 지자견 지음 / 리선희 옮김 167

녀신 왕몽 지음 / 우광훈 옮김 211

불을 밝혀라 장항항 지음 / 우광훈 옮김 278

후기 329



금융가(金融街) 변두리길

왕흔봉(王昕朋) 지음
김견 옮김

북경에서 막벌이일군으로 살아가는 소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로,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삶의 고초와 선과 악, 미와 추, 매물찬 인성과 따뜻한 인간애의 대조적인 모습들 그리고 도시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소설은 우리를 이 특수한 우리의 특수한 세계에로 안내하고...

1

“하소연 다 했어? 다 꿰찼냐구.”

소희가 건성으로 물었다.

그에 대희가 이마살을 찌프린 채, 불평 가득한 눈길로 소희를 흘깃 쳐다보았다. 대희가 하소연하면서 흘쩍이는 동안, 소희는 빨래를 하느라 여념 없었던 것이다. 소희는 지금 빨간색 플라스틱 물통에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빨래물은 이제 더럽다 못해 여러 색상의 옷들이 한데

뒤엎켜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갈 지경이었다. 소희 남편이 이태 전 고물을 회수하면서 15원을 주고 사온 중고 세탁기가 한대 있긴 했는데 겨우 두번 써보고 고장 나는 바람에 바깥통로에 방치되어있었다. 소희 말로는 이웃사람들이 세탁기 하나 없이 산다고 우습게 보는 일이 없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거기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란다.

“소희야, 너 내 말 듣긴 한 거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듣긴 한 거냐고.”

대희가 그렇게 묻자 소희가 대답 대신 세수수건을 건네주고는 빨래를 내다 널면서 말했다.

“겨우 고만한 일을 내가 뭐 두귀 쫓긋 세우고 들어야겠어? 들어보나마나 뻥한 일인데. 기껏 말해봤자 보스가 매일같이 언니보고 자기 애한테 우유 한병씩 사주라 하면서 정작 돈은 한번도 준 적이 없다. 이거 아냐? 이젠 800번도 넘게 말했잖아…”

그러자 대희는 정말 화가 난 모양, 목청을 한옥타브 높였다.

“지금 그 애길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지 놈이 사람 우습게 여기고 날 우롱한단 말야! 여태 입이 아프도록 말했건만 난 단 한마디도 여겨듣지 않았잖아.”

말을 마친 대희는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소희 발치에 수건을 핵 던져버리고는 뺑하니 출입문 쪽으로 나갔다.

그제야 대희가 단단히 화나있음을 알아챈 소희는 얼른 다가가 대희를 가로막으며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미안. 화내지 마. 자자, 좀 천천히 얘기해봐.”

수건을 주어 들고 젖은 손을 닦던 소희는 아부조로 대희 엉덩이를 털어주려고 수건을 떨다가 엉덩이가 말짱한 것을 보고는 다시 수건을 대희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이젠 빨래도 널지 않을게 하고 다짐이라 하듯 대희와 마주선 채 미동도 안했다.

그제야 대희는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한편으론 또 눈물 코물 쥐여짜며 하소연을 시작했다.

낮에 주차장에 두시간 정도 주차해둔 차가 한대 있었는데 제2순환도로 이내의 수금표준 대로라면 첫 한시간은 15원, 두시간째부터는 시간당 10원, 해서 도합 25원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그 차주는 달랑 10원을 주면서 령수증은 필요없다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차주가 하는 말

